

「기록의 날」 대통령 축하 대독

(19. 6. 7. / 성남 나라기록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을 남겨주시는 기록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축하하는 ‘기록의 날’이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국가기록원’ 설립 50주년과

‘공공기록물법’ 제정 20주년이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공공기록 관리와 전승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있는
기록인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록은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기록물을 소중하게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록물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승정원일기, 일성록, 난중일기,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등

우리가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이 16점에 이릅니다.

이는 아시아 최고이자 세계 4위 수준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역대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기록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62년 내각사무처 내 작은 마이크로필름 촬영실에서 시작한 '국가기록원'은 오늘날 330여 명에 이르는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전자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록물 콘텐츠를 제공하며 혁신의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관리의 전반적인 수준도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강조했던 참여정부는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대통령기록관'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기록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경남과 서울은 자체 기록원을 개원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공공, 민간 기록을 지역 공동체의 역사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랜 기록 문화에 기록인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물을 국민께 공개하고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이 쉽고 편하게 국가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록 생산 현장뿐 아니라 기록물 이용자인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은 충실한 기록관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록의 역사에는 시련과 어둠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만의 기록이 단절되었고,
6.25 전쟁 직후에는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기록 체계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뼈아픈 퇴행의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가기록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촛불혁명과 함께 출범한 우리 정부는
촛불에 담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기록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기록인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만든 기록유산이
미래세대의 뿌리와 정체성이 될 것이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기록을 통해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록으로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기록의 날 기념행사가 기록인 여러분의 자부심을 높이는
위로와 축하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